민족문화연구 “조선시대 유서(類書)의 지식학적 검토” 특집의 말

조선시대 유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있다. 유서는 조선 후기 백과사전류 저술로서 박학적 관심의 구현이라는 측면에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고, 최근에는 지식의 회집, 항목화, 분류, 변증 등 유서의 문체와 특성에 대한 규명이 이루어졌다. 최근에는 유서가 포괄하는 다양한 학문적 주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그러나 광범한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유서가 담고 있는 ‘지식’의 특성을 적절하게 다룰 만한 본격적인 지식학 혹은 지식사적 접근은 이제 출발선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조선시대 유서지식 연구실’은 이런 점에 주목하여 현재 조선시대 유서 지식 DB와 지식지도의 구축과 시각화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2017년 12월 한국실학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유서 학술대회를 거쳐, 2019년 2월 ‘조선시대 유서의 지식학적 검토’라는 주제로 학술대회를 개최했으며, 여기에서 발표된 원고들을 심사를 거쳐 이번 호에 기획특집 논문으로 수록한다.

김문용은 “조선시대 유서 지식의 성격”에서 유서를 통해 집적되고 전승된 지식의 성격을 검토했다. 이 논문은 지식사적 관점에서 『지봉유설』, 『성호사설』,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을 중심으로 유서의 성격과 범위, 유서 지식의 특성 등을 분석했다. 특히 18세기 중반 이후 박학과 명물도수학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주자학과 유서학의 차이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박학에서 박물로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지고 명물에서 도수로 지식이 심화되는 양상을 설명했다. 또한 조선 후기 유서가 선보인 지식의 확장과 심화가 전통적인 지식과 방법론으로부터 완전히 독립할 만한 차원으로 진입하지 못하는 한계도 지적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유서 지식학 혹은 유서 지식사의 새로운 접근을 위해서 유념해야 할 사실과 검토해야 할 문제를 분명하게 검토함으로써 향후 이러한 논의를 발전시킬 만한 디딤돌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일독의 가치가 있다.

김선희는 “조선 후기 유서와 서학”을 통해 조선 후기 유서들이 단편적이고 개별적인 지식들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며 평가하는 능동적 지식 재배치의 결

과이며 그러한 현상에는 지식을 정렬하고 재배치하고 위상과 범주를 변경하기 위한 사회적 변화와 지적 조건의 변화가 개재한다는 시각을 갖고 예수회를 통해 도입된 서학(西學)의 지식이 어떻게 유서 지식으로 재구성되는가 하는 문제를 천착했다. 특히 『지봉유설』, 『성호사설』, 『오주연문장전산고』 등을 중심으로 서학의 유입과 지적 변화를 검토하면서 서학이 전통적인 성리학적 맥락에서 '격치'가 분리되는 측면과 '격치'의 실질적 성격으로 부각된 박학의 추구에 지적 자원을 제공했다는 점을 중점적으로 해명하였다. 유서와 서학의 관계를 검토한 이 연구는 전통적 지식의 구조와 분류 및 범주가 서학과 만나면서 이루어지는 연결과 변화를 추적하는 방식의 선례를 제공하고 그러한 작업에서 고려해야 할 대목이 무엇인지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김윤경 "조선의 백과사전 속 '단군'의 표상"에서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세기별로 대표적인 유서 4종인 『대동운부군옥』, 『지봉유설』, 『성호사설』, 『오주연문장전산고』를 대상으로 '단군'에 대한 지식과 담론이 상상되고 소비되는 양상을 규명한 연구다. 필자는 『대동운부군옥』이 독자적 문명국가의 강한 자의식이 투영된 반면, 『지봉유설』이 단군에 대한 실증적 고찰을 통한 단군에 대한 역사적 자부심을 드러낸다면, 『성호사설』은 문명과 미개의 이중적 태도로 단군을 이해한 반면, 『오주연문장전산고』는 기자조선의 문명기원과 연관된 소중화론의 관점에서 단군을 활용했다고 평가했다. 필자는 유서를 통해 재구성된 단군 관련 지식이 16-17세기 단군에 대한 자부심에서 18-19세기 미개사회에서 문명국가로 나아가는 소중화적 태도로 변화하는 흐름을 지식사적으로 설명했다. 이러한 설명은 유서를 통해 지식의 역사적 변화 양상을 추적하는 구체적 방법과 사례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강경현은 '조선 類書類 문헌의 儒家 경전 이해'에서 조선 후기 유서류 문헌이 지식의 축적과 박학 지향이라는 특성을 드러내는 가운데 주자학적 유가 경전 해석을 경학사적으로 상대화함으로써 비판적으로 극복하는 양상을 주로 『五洲衍文長箋散稿』를 중심으로 검토한 연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그동안 유가 경전 해석이 주로 특정한 주제의 전문적 분야에 국한되었던 연구동향에서 벗어나서 그동안 거의 진행되지 않은 유서류 문헌의 유가 경학 해석학을 본

격적으로 연구했다는 의의와 더불어, 청대까지 집적된 방대한 박학적 지식이 조선의 현실에서 당면한 현실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는 경세적 문제의식을 다루는 자료적 지식으로 재구성되는 양상을 드러낸다는 점에서 유서 지식의 지식사적 기능에 대한 고찰이자 유서 지식의 경학사적 함의에 대한 논의를 촉구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조선시대 유서의 지식학적 검토’를 주제로 한 이번 기획특집에는 조선시대 유서 지식의 성격, 유서 지식과 서학의 관계, 유서류에 나타난 단군 지식의 변화 양상, 유서류 문헌의 유가 경전 해석학이 지닌 특성과 지식사적 함의 등을 다루었다. 기존의 유서 연구나 유서를 주제로 삼은 학술대회들이 주로 특정한 주제에 대한 다양한 유서들의 내용을 유서별로 접근하거나 특정한 유서에 대한 다양한 학문분야의 종합적 탐색을 병렬적으로 전개했던 것과는 달리, 본 기획특집은 시대별로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유서들을 망라하면서 그 유서들에서 지식, 서학, 단군, 유가 경전에 대한 지식들이 새롭게 배열되고 재구성되며 범주와 위상이 달라지는 양상을 추적함으로써 유서 지식의 특성을 고려한 지식학 혹은 지식사의 방법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이 분야 연구에 일정하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